

근대를 사랑한 신여성, 근대에게 버림받은 신여성

—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김정일 지음, 푸른역사, 2004)

김 윤 선

1. 남성이 '다시' 쓰는 여성 이야기?

2000년대 이후, 오랜 동안 역사와 대중의 관심에서 소외되었던 신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연구 주제로 부상하였으며, 그 결과물들이 대중들에게 소개되면서 역사 안에서 부활한 듯하다. 그러나 그녀들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누구보다도 여성들 고유의 영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니고서는 여성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힘들며, 여성 의식 없이 여성에 대한 연구는 남성 권력에 협력하는 또 하나의 여성 소외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남성 스스로 여성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2004년에 출판된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2004)은 무엇보다도 저자가 생물학적으로 남성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목된다. 이 책의 출판을 둘러싼 반응 또한 대단했다. 연구 자료의 방대함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역사가 남성에 의해 다시 기술되기 시작

한 시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남성이 쓴 여성의 역사는 연구자의 성차를 뛰어넘어 역사의 틈새를 만들고자 했던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공감대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보다 남성 연구자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동안 그들의 관심에서 배제되었던 여성의 문제를 연구하고자 했을까.

저자 김경일은 서문에서 성에 대한 연구가 약간의 망설임과 축스러움을 수반하는 영역이라 그동안 자신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고 고백한다. 그러던 중 한 여성 연구자였던 여순주 씨를 지도하면서 그 인연으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제 시기 여성에 관한 연구 자료를 수집하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즉 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의 연구비 수혜가 한 연구자의 망설임을 연구 성과로 이끄는 동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는 90년대 이후 학술진흥재단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원 관제 연구가 가져온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문만으로는 사회학자인 저자의 의식이 생물학적인 성차를 넘어서 얼마나 여성주의적으로 연구에 착수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저자는 본문에서 '신여성 연구자는 여성에 관한 자료들을 드러내어 제시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개입하는 남성 지배의 시선과 권력 작용을 읽어내야 한다'(p.32)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

저자가 그렇듯이 남성 연구자가 여성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본격적 연구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발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이야기는 여성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시각을 배제한 여성에 관한 연구가 기존의 남성 중심적 역사에 기여하는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 책은 최근의 여성주의 연구자들의 관심 영역을 남성 연구자가 연구함으로써, 차후 여성 연구가 여성만의 연구가 아니라 양성간의 연구로 나아가게 되는 첫 출발을 열었을 뿐 아니라, 그 성패를 가늠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연구자 스스

로 남성 지배의 시선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는 노력에서 기존의 남성에게 해 주도되었던 역사 기술이나 연구와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그러한 저자의 노력의 성과를 여성주의적으로 다시 해석해 보는 시도가 될 것이다. 즉 이 글은 여성들의 자료를 통해 남성 지배의 시선과 권력 작용을 읽어내고자 했던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을 소략하게나마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시 읽는 작업이 될 것이다.

2. 근대의 표상, 신여성?

이 책은 식민지라는 조선 사회에서 근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신여성을 매개로 보여 주었다. 근대성의 형성 과정에 나타난 전통과 근대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면 등장하는 질문, 즉 전통과 근대가 지니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명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해줄 수 있는 문제 영역이 바로 신여성이라는 것이다. 저자는 신여성만큼 근대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존재도 없다는 하면서 연구 대상 선별의 목적을 분명히 한다. 즉 저자는 근대 연구를 위해 신여성을 선택하였으며, 신여성이 근대적 영역을 점유하고 근대성을 표방했던 그 현상을 통해 '근대'를 연구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에게 신여성은 근대성 분석의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신여성에 대한 개념의 정의와 변천,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을 둘러싼 신여성의 자기정체성 문제, 성과 사랑, 신체와 단발, 스포츠, 소비와 유행, 지식과 교육, 일과 직업 등 식민지 시대 신여성을 둘러싼 제반 영역의 주제들을 『신여성』, 『여성』, 『별건곤』 등에 나오는 자료와 함께 소개하고 분석한다.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들의 방대한 활용에 힘입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자가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의 신여성과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서술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제3세계 여성으로

서의 동아시아적 관점이 얼마나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차치하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여성들을 비교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즐거움이 또한 이 책의 놓칠 수 없는 매력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자에게 신여성이 근대를 읽을 수 있는 유용하고 흥미로운 기제가 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문제적인 것은 그가 '여성'의 관점을 얼마나 견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의 진정성 문제이다.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성 담론에 대한 분석 내용이다. 저자는 성과 사랑의 자유를 부르짖었던 신여성들은 자유연애를 근대 사조의 하나로 받아들였으나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 내재화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인 여성의 범주가 매우 취약했다고 지적한다(p.124). 그래서 일본과는 달리 자유연애 사조의 식민지적 실행은 통속화의 과정을 밟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자유연애는 근대적 의미에서의 성의 자유를 위한 유의미한 문화적 실행이나 제도들을 새로이 창출하는 데 실패하였으며, 그 실패는 신여성이 좌절해가는 과정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성문제의 원형이 고착되어 과정이기도 했다. 성의 타락과 방종에 대한 경향은 1930년대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어 당시 성은 퇴폐적 쾌락주의와 향락주의로의 도피로 드러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그의 분석에서 결여되어 있는 것이 당시 식민지 조선 사회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이다. 그는 성의 타락과 퇴폐의 주 원인을 신여성들의 자유연애 실패에 두고 있지만, 그것은 신여성들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정책의 제도적 차원에서 기획된 또 하나의 식민화 기획 중 하나였다. 이 과정에서 성을 상품화시키는 성 상품화와 성의 도구화, 성의 타락과 퇴폐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그 중심에 여성의 성이 있었다. 당시 여성의 성은 자유연애라는 근대적 이념의 실현보다는 착종된 근대의 현상을 보여주는 징후였으며, 식민화와 근대화도 동시에 일어났던 식민지 조선의 현실이기도 했다. 그것을 도외시한 채, 지식인 여성이었던 신여성 개인의 전기적 사실과 그녀들의 자유연애의 실패로 그 원인을 전가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

게 된다. 어쩌면 이러한 시각은 역사 속에 소외되고 이용당해야 했던 여성의 성을 여성의 시선보다는 근대의 시선으로 읽어내고자 했던 저자의 연구 목적에서부터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었던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문제는 동성에 분석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동성에는 이 시기의 억눌린 성이 분출구를 찾아나가는 또 다른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 당시 조선에서 여성 동성에는 억눌린 성이 분출구를 찾아나가는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보다는 여성들의 우정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태서 비롯된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의 경우 학교에서 나타나는 여성끼리의 짝패 현상을 동성애로 규정지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식민지 조선에서 나타난 여성 동성애 문제가 서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으로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여성에 의해 우선적으로 채택되고 실행되었다고 밝힌다(p.153). 푸코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동성애는 근대 이전 이미 그리스시대 남성들 간의 인격적 만남으로서의 연애 형태로 존재해 왔다. 서구이든 식민지 조선이든 동성애가 여성들 간의 애정 관계로 간주되는 것은 남성 동성애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성들의 사랑과 우정까지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던 남성중심 사회가 만든 왜곡이었다. 이미 1910년대 이광수의 소설에서도 남성 동성애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 이후 여성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배경에는 여성 차별적 요소가 전제함을 부인할 수 없다. 저자가 지적하듯이 남성들 사이에도 동성애는 있었으나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식민지 조선에서의 여성 동성애 문제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대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성 차별의 장이자 여성 억압의 또 다른 표상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식민지라는 상황, 그리고 다시 조선 안에서 여성이라는 성별은 식민지 조선의 여성에게는 이중의 식민화체험이었다. 식민지 상황으로 인해 성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어 파국을 맞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p.160)음을 인

정한다면, 식민지 상황에 대한 사회 구조적 분석 없이 여성의 전기적 사실을 통한 접근이나 자료의 적용과 소개만으로는 왜곡된 당시의 현실을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이 책의 저자가 은밀하고도 더 오랫동안 추구된 여성 억압의 문제와 근대화 과정에서 파생된 여성의 성적 도구화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여성의 희생을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저자에게 묻고 싶다.

왜 신여성인가? 그것은 신여성이 근대의 표상이자 한국적 근대화의 과정을 분석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 최근 신여성에 대한 관심이 근대 연구라는 프로젝트 속에서 활발하게 가시화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신여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우리는 '왜 신여성인가'라는 질문부터 다시 던져야 한다. 그 답으로 필자는 누구보다 먼저 그녀들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싶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도 기형적 지식인으로 남아있는 그녀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 실패를 아파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누구의 공감도 얻어내지 못했던 신여성들과 비로소(!)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 만남으로 잃어버린 여성의 역사, 묻혀진 여성의 얼굴을 복원할 때, 다시는 여성을 비롯한 어떠한 소수자들도 더 이상 역사의 희생자가 아닌 주체적인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지식의 힘, 여성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은 아직도 근대를 살아내야 하는 지식인 여성들, 주류에서 계속 미끄러지는 소수자들에게 던지는 20세기 초 식민지 조선의 신여성들의 정체성 찾기이기도 하다.

3. 여성의 근대, 영원한 실패작?

저자는 근대적인 것에서 자신의 의식을 형성하였던 신여성이 궁극적으로 근대에게서 외면당하였다는 말로 결론을 맺는다. 제1세대 신여성들의 전기적 사실에 근거하여 저자는 근대적 여성에게 '여성의 근대'는 여전히

미완성의 과제임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p.111)는 것이다. 이후의 서술은 이 시기 각 분야에서 신여성의 변모상을 소개하고 기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여성의 근대를 실패한 것으로 보는 저자의 결론을 위해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여성 교육 부분이다. 여성의 근대적 자아상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 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여성 교육에 대해 선교사에 의해 주도되었던 여성 교육의 장이 식민권력과 서구 선교사들에 의한 타자화가 진행되었던 장이자 다양한 이념과 제안들이 서로 각축하는 장(p.310)이었다고 전제한다. 식민지 여성 교육은 식민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 내용의 부적합성과 비현실성 때문에 당시에 이미 비판의 쟁점이 되었다. 식민지 상황에서 끊임없이 발전하였던 여성의 개성과 의식은 서구적이고 일본적이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에 공감한다. 즉 식민지 여성 교육은 서구적 감각과 일본적 기호를 내재화한 여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다(p.316). 아울러 저자는 동일한 식민지 상황에서 정치나 법률, 경제, 사회, 또는 철학과 같은 분야의 교양이 교육 받은 남성들에게 장려되었던 반면에 교육 받은 여성들은 왜 이 분야의 지식을 낮설게 여기고, 남성과는 달리 인격 수양을 주제로 하는 이른바 수양서들에 친숙해지지 않고 수양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도록 사회화되었는지에 대해 문제제기 한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교육을 통해 여성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갔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규명하지는 않은 채 단지 식민지 여성이 경험해야 했던 다중적인 타자화를 구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지식 체계의 성립이나 확산 과정에서 식민지/남성 지배 권력이 어떠한 논리로 개입하고 작동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데서 그칠 뿐이다. 또한 저자는 당시 여성이 감성적이고 시야가 좁으며 가사 이외의 다른 일들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식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식민지의 규정성과 남성에 의한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산물이지 여성의 타고난 속성은 아니라고 말함으

로써 저자의 여성 의식이 당시의 남성과는 '다른' 남성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식민지에서의 다중적 억압과 차별을 배경으로, 여성은 식민지와 남성에 대한 타자로 머물렀다는 결론은 이미 많은 논자들에게 의해 지적된 점이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과 분석을 바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의 장점은 무엇보다 당시의 생생한 자료와 분석을 통해 신여성들의 존재를 현실의 공간 안으로 옮겨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당대를 살았던 신여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구자의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근대의 관점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분석하겠다는 저자의 연구 방법에도 불구하고 신여성들의 삶의 궤적과 그 역사적 의미는 그 본연의 모습을 아직도 확연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는 저자의 한계라기보다는, 앞으로 또 다른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진 과제이다. 이 책의 저자가 여성에 대한 동조적 시선을 견지하려고 하였다든 것만으로도 현재 한국의 학문적 현실 속에서는 선구적 남성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그가 보여주었던 연구 자료의 방대함은 저자에게 돌려야 할 성과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던져준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를 통해 드러나는 여성의 모습을 소개하고 여성의 처지를 이해해 주고자 했던 저자의 노력을 넘어, 여성의 입장에서 다시 읽고 분석하면서, 그것을 남성적 시선과 조응하며 신여성의 정체성을 복원하는 작업을 기대하고 싶다. 실패한 여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다시 살아나는 신여성, 오늘날 우리 여성의 정체성을 반성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들의 선조, 신여성을 다시 만나고 싶다. 근대를 사랑하고 추종한 신여성, 그러나 근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실패한 신여성이 아니라 근대에 거슬러도 전했던 신여성, 근대의 정면에서 분투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역사 안에 가로질렀던 신여성을 만나고 싶다. 비록 그녀들이 역사의 장에서 사라져갔

다 하더라도, 그녀들의 인생이 실패로 낙인찍혔다 하더라도, 좌절과 실패만이 아닌 도전과 응전으로서의 신여성을 만나고 싶다. 이는 아직도 근대적 공간 안에서 제 3세계 지식인 여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지식인 여성의 정체성 찾기의 한 과정이기도 하다. 실패자나 낙오자가 아니라 당당한 이름으로의 새로운 여성인 '신여성'으로 태어나고 살아가기 위해서 100여년의 시간을 넘어 연대하고 싶은 신여성들인 그녀들에게 여성의 근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 그 성공을 위해 신여성들의 이름을 다시 부르겠노라는 약속을 하게 된 것이 이 책이 우리에게 준 가장 값진 성과인지도 모르겠다.

